

## 海外情報

### ○ Oman-India, Omifco 폐쇄 12월까지 연장

문제가 되고 있는 Oman-India Fertilizer Company(Omifco)의 폐쇄조치가 다시 연장되어 2001년 12월까지 갈 듯하다. 각각 25%의 주식지분을 가진 인도측 제휴사인 Krishak Bharati Cooperative(Kribhco)와 India Farmers Fertilizer Collective(Iffico) 그리고 나머지 지분을 가진 Oman Oil Company 사이의 10억달러짜리 합작사업은 쌍둥이 트레인의 암모니아 공장단지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 단지에는 요소 165만 톤/년, 암모니아 잉여물 250,000톤/년을 생산하게 된다.

재무구조는 부채/자산 비율을 2:1로 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인도측 제휴사는 각각 필요로 하는 8천만달러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였다. 인도당국은 \$140/톤에서 시작하여 차츰 \$ 105/톤으로 내려가는 15년간의 요소에 대한 인수 및 지불계약에 합의하였고 Iffoco는 \$ 100/톤 f.o.b에 15년간의 암모니아 계약에 합의하였다.

한편 Snamprogetti와 Technip가 주도하는 콘서시엄은 1999년에 수주한 건설계약을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으로 보면 2002년 1월에 착공하여 2004년에 공장이 완공되고 2005년초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 Nitrogen & Methanol No. 254 November-December 2001 >

### ○ 이란, 요소공장 입찰 초청

Kermansha Petrochemicals Industries Co(KPI)는 이란 북서쪽 Kermansha에 660,000톤/년 암모니아/요소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입찰자들을 초청하였다.

이 공장은 이란에서 첫번째의 개인소유 비료시설이 될 것이다. KPI는 이 신설공장이 2004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계획일자보다 1년이 늦은 것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54 November-December 2001 >

## ○ 우즈베키스탄, 비료부문 민영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나라의 비료 생산부문을 부분적으로 민영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질소질 생산업체 PO Azot Fergana, Navoi Azot 그리고 인산질 생산업체 Ammophos Almalyk 및 Samarkand Chemical Plant 주식지분 중에서 45-49%를 취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에 암모니아 1백만톤, 요소 350,000톤 및 질산암모늄 130만톤을 생산하였다.

< Nitrogen & Methanol No. 254 November-December 2001 >

#### ○ 호주의 Orica, 원가절감 운동

호주의 질산암모늄 제조업체인 Orica는 경영부진을 겪고 난 후 고정원가를 줄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2001년 2월까지의 회계년도에 Orica는 1200만 호주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2000년 말경의 4개월간에 걸친 파업과 미국의 높은 개스가격에 기인된 신년도의 암모니아 가격 때문으로 보고 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4 November-December 2001 >

#### ○ 호주의 Plenty River, 계획된 요소시설 확충

호주 서부 부럽반도에 암모니아/요소 시설을 건설하려는 Plenty River Corporation은 그 사업규모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요소 660,000톤/년으로부터 825,000톤/년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2004년에 완공예정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인도측 파트너인 Chambal Chemicals and Fertilizers가 철수함으로써 적어도 1년간 늦추어지게 되었다. Plenty River는 현재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이 파트너에게 주식지분 50%를 내 줄 것이다.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4 November-December 2001 >

oo

## ○ 인도네시아, 아체의 요소 생산 불투명

금년 3월부터 원료 개스의 입수난으로 장기간 정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주의 요소 생산 재개는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치안문제 때문에 미국계 기업인 엑슨·모빌의 천연개스 생산 중지가 여름시장에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 개스가 암모니아 생산에 미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요소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인 것 같다. 언제 재개 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엑슨·모빌의 천연개스 생산 재개로 그곳 요소 제조업체인 에스칸달무다는 8월 이후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 생산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정상조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아체의 요소 생산 재개가 전망이 밝지 못한 한 재개하는 에스칸달무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므로 인도네시아의 요소 생산은 전체적으로 갑자기 떨어지고, 대외 수출 또한 곤란하다. 국내용 재고의 누적 문제도 떠맡고 있으므로 현재 정지 상태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요소를 수입하고 있는 관련업체들도 수입원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미 다른 시장으로부터 수입을 시작하기도 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10월 29일 >

## ○ 일본의 중국산 프릴 요소 수입 문제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인도네시아 제품 수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업계 일부업자는 년내에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에 용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측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인 JA 전농 등이 2년 전부터 해남도의 그레뉼 형태의 제품 수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프릴 제품의 수입으로 일부업자들은 이미 수입에 관계하였거나 착수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세로부터 업계 일부에서는 금년 년내에도 수입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보면 중국산 요소는 그레뉼 제품뿐만 아니라 프릴 제품의 수입쪽으로도 진전할 것 같다.

중국의 프릴 요소는 해남도에 위치한 제조업체의 제품이며, 제조업체도 많다고 한다.

oo

중국산 요소의 수입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제품의 생산 중지가 지속되고, 이 대체품으로서의 촉진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의 생산이 저하되고 업자에 따라서는 수입처의 다원화·안정화의 목적으로 있다.

대형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작년부터 수출국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본도 그레뉼 형태의 제품뿐 아니라 프릴 제품의 수입도 취급하게 된 것이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10월 29일 >

## ○ 미국의 인산질비료 재고 상황

미국의 8월말 현재 인산질 비료 재고 상황은 DAP 727,000톤, MAP 539,000톤으로 전년대비 DAP는 5% 감소하였고, MAP는 42%가 증가했다.

미국의 관련 통계에 따른 것으로 합계는 1,266,000톤으로 11%가 증가된 것이다. 전년동월 대비해서는 DAP 1%, MAP 13%가 각각 증가하였고 총계는 6%가 증가하였다.

관련 제조업체의 생산 조정과 추비 씨즌 진입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인산질비료 수요는 수출과 더불어 신통치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수요 규모가 작은 MAP의 재고 증가가 특히 눈에 띄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10월 18일 >

## ○ IMC, DAP 수급관련 대책 모색

미국의 인산질 비료 제조업체인 IMC 글로벌은 11월부터 DAP 생산을 재개했던 것을 또 중지할 전망이다. 추비 씨즌도 종반이고 예정대로의 행동이기도 한 것이다.

IMC는 전에 국내 추비용 공급을 고려하여 도날드슨비루 공장의 전면 중지를 전체의 2/3 정도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 재개에서는 추비용이 끝나면 다시 중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시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일부에서는 최근 미국 DAP 수급상 11월에는 도날드슨비루 공장을 또 전면 중지한다고 한다. 다만 공식 정보는 없어 어떻다고 단정은 불가능하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10월 19일 >

//

## ○ 미국 포스켐, 중국의 시노켐과 DAP 대량 계약

미국 포스켐이 중국의 시노켐과 농자공사에 맞추어 2002년 물인 DAP 245만톤의 대량 매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업계측에서는 이 대형 계약으로 미국 DAP 시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가 주목되고 있다고 한다.

포스켐의 중국을 향한 DAP 매각은 시기적으로 관례적인 것으로 이미 미국 제조업체들은 수급이 견실하다는 판단에서 가격에는 강세의 흐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다소의 시간을 두지 않고서는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대형 결정의 결과, 제조업체의 감산 형태가 계속되는 일도 있어 미국의 인산질비료 수급은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타이트해질 수 있고, 가격은 심상치 않은 저가시세에서 상승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DAP 가격은 제조업체의 생산 조정 지속, 추비 씨즌 진입 등을 통하여 바닥에서 벗어나 재고도 감소하여 상승으로 전환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약간 상승을 보이는 정도였다. 여기에 예상되었던 중국을 향한 신규 물 245만톤의 대량 매각이 날아 왔다.

이러한 커다란 결정에 따라 미국의 DAP 시황은 수급 조절 등에 따라 앞으로 상승으로 반전할지가 주목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1개월 전후의 결과가 중요시 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체에서는 IMC가 추비 화물 이동을 노리고 정지한 도날드슨비루 공장을 2/3 재개하고 추비가 끝나는 11월초에는 다시 전면 중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재개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도날드슨비루는 국내 전용으로 포스켐의 대 중국 대량 계약과는 직접 관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체 수급에는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10월 25일 >

## ○ 미국 DAP 수출가격 상승 예경

10월 25일 업계측이 말한 것에 따르면 미국의 DAP 수출가격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가격 상승 기운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점점 상승으로 향하는 기조로 움직이는 것 같다. 전망이다.

미국 포스켐이 중국 시장을 향한 2002년 물로서 245만톤이나 대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가 돌고 공급측이 수급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점점 강세구조로 바뀌어 온 것이 배경이다. 실제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DAP 가격은 하락 시세중에서 제조업체의 생산조정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다소의 상승, 또 하락이라는 변화의 반복으로 한때 FOB 200 달러대라는 고가와는 조금 먼 현실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포스剋의 대 중국 대량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 가격은 상승 기미를 보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강세의 상승도 확실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시황 동향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측은 이러한 견해 속에서 강세의 상승으로 바뀌어 앞으로 한발 더 가격  
상승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주목하고 있다.

대 중국 DAP 수출은 포스켐의 2002년의 245만톤은 별도로 하고 금년년내의 카고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포함한 대량 매각의 결정으로 지금 미국내 DAP 수출가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한 환율의 엔저 변동이 있는 중에 원료의 DAP 시황 동향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FOB 가격이 상승으로 바뀌게 되면 수입국의 수입가격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업계의 엄격한 환경 하에서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10월 26일 >

♣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을 보르는 사람을 결코 높이 향상하지 못한다.

< 五音譜 >